

### 이라크 원정 후 베이스캠프 답사 벤투호 발빠른 월드컵 본선 준비

이라크, 카타르 도하를 흥경기 장소 사용  
내년 1월에 사용할 전지훈련장소도 물색



벤투 감독

통산 11회,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도전하는 한국축구가 2022카타르월드컵 본선에 미리 대비한다. 월드컵 기간 중 축구국가대표팀에 쾌적한 훈련환경을 제공할 베이스캠프 선정작업이 첫 단추다.

축구계 유력 관계자는 14일 "A대표팀 파울루 벤투 감독(포르투갈)이 11월 카타르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5·6차전을 마친 뒤 카타르에서 월드컵 베이스캠프 후보지를 답사할 계획"이라고 귀띔했다. 대한축구협회(KFA)도 "베이스캠프 선정이 월드컵 본선 준비의 출발"이라며 사실을 인정했다.

월드컵 본선 진출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으나 빠른 준비는 지극히 당연한 절차다. 2018러시아월드컵, 2014브라질월드컵 등을 준비하던 과거에도 최종예선 기간 중 대표팀 코칭스태프가 직접 베이스캠프 후보지를 현지 답사했고, 대회 개막을 6개월여 앞둔 시점에는 계약까지 마무리했다.

시리아(7일·안산), 이란(12일·테헤란)을 상대한 10월 최종예선 3·4차전을 마무리한 대표팀은 다음달 11일 홈(장소 미정)에서 아랍에미리트(UAE)와 격돌한 뒤 16일 이라크와 원정경기를 치를 예정이다. 2승2무, 승점 8로 2위에 올라있는 한국은 3승1무의 선두 이란(승점 10)을 바짝 뒤쫓고 있다.

9, 10월과 달리 11월 최종예선 2연전에는 중대 변수가 도사리고 있다. 이라크 현지의 불안한 치안상황과 어지러운 정세로 인해 정상적인 경기 진행이 어려워 제3국 개최가 불가피하다. 공교롭게도 이번 최종예선에서 이라크는 카타르 도하를 흥경기 개최장소로 사용하고 있다. 벤투 감독 등이 베이스캠프를 탐색하는 데 유리한 환경이다. 만약 이라크축구협회가 갑작스레 흥경기 장소를 변경하더라도 중동지역을 떠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0)다.

카타르월드컵조직위원회는 지난해 하반기 도하지역에 기반을 둔 40여 곳의 베이스캠프 후보지를 공개했다. 국제축구연맹(FIFA)이 인증한 천연잔디훈련장과 라커룸, 휴게실, 기자회견장, 미디어룸 외에 공개훈련용 관람석 등의 기반시설로 구성된 베이스캠프 일부는 이미 사용된 바 있다.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출전국 선수단과 클럽월드컵 출전팀 일부가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벤투 감독 일행의 카타르 방문 목적은 또 있다. 내년 1월 대표팀의 단기 전지훈련 때 사용할 훈련장 물색이다. KFA의 국가대표 축구단 운영 규정에 따르면, 대표팀에는 월드컵이 열리는 해 1~2월에 2주 이내의 보강훈련을 할 기회가 주어진다. 내년 1월 27일 레바논, 2월 1일 시리아와 원정 2연전을 치르는 대표팀은 월드컵 베이스캠프 후보지에 머물며 먼저 손발을 맞춘 뒤 각 지역으로 이동하는 스케줄을 짤 것으로 보인다. 남정현 기자

#### 지소연 74분 뒀 첼시 위민, UWCL 유벤투스전 승리

첼시 위민(잉글랜드) 지소연(30)이 14일(한국시간) 토리노 알리안츠 스타디움에서 열린 유벤투스(이탈리아)와 2021~2022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여자 챔피언스리그(UWCL) 조별리그 A조 2차전에 선발출전해 74분간 뛰며 팀의 2-1 승리에 기여했다. 공격 포인트는 없었다. 볼프스부르크(독일)와 1차전에서 3-3으로 비겼던 첼시는 대회 첫 승을 신고했다. 볼프스부르크와 1승1무(승점 4)로 동률이지만, 득실차(볼프스부르크 +5·첼시 +1)에서 뒤져 조 2위다. 유벤투스는 1승1패(승점 3)로 3위.

#### "보이는 것보다 힘든 여정" 기성용, 벤투호 응원

기성용(32·FC서울)이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2022카타르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에 나선 축구국가대표팀 후배들을 응원했다. 그는 "이제는 멀리서 대표팀을 응원하는 재미가 있다. 한창 중요한 최종예선을 치르고 있는 우리 대표팀의 모습을 보면 선수들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좋은 방향으로 경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밖에서 보는 모습과 안에서 경기를 준비하며 느끼는 과정과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보이는 것보다 훨씬 부담스럽고 힘든 여정"이라고 적었다. 기성용은 2019년 아랍에미리트(UAE) 아시안컵 종료 후 대표팀에서 은퇴했다. A매치 통산 110경기에 출전했다.

### 전북 vs 울산...17일 오후 7시 ACL 8강서 격돌



김상식 감독(왼쪽)의 전북과 홍명보 감독의 울산이 17일 오후 7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2021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8강전 맞대결을 펼친다. 올해 아시아 정상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현대'가 대비가 벌어진다.



## "너를 넘어야 쏠 정상 도전"...현대가의 난

전북, 홈 구장서 유관중 경기 유리  
울산, 올해 맞대결 1승2무 자신감  
각각 대표팀 5명 차출 휴유증 변수



중요한 길목에서 번번이 만났던 전북 현대와 울산 현대가 올해는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 8강에서 격돌한다.

2021 ACL 동아시아지역 8강전이 17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펼쳐진다. 오후 2시 포항 스틸러스와 나고야 그램퍼스(일본)가 먼저 맞붙은 뒤 오후 7시 전북과 울산이 4강 진출을 놓고 외나무다리 승부를 벌인다. 4강전은 20일 같은 장

소에서 열린다. '현대'의 두 팀은 ACL 정상에 오르려면 반드시 서로를 넘어야 한다. 전북은 최근 A매치 휴식기를 활용해 경남 남해에서 단기 전지훈련을 소화했다. 울산은 클럽하우스에서 담금질을 진행하고 있다.

전북과 울산은 지난해에도 불꽃 튀는 경정을 펼친 바 있다. 전북이 울산과 4차례 맞대결에서 3승1무로 크게 앞서며 구단 역사상 최초로 K리그-FA컵 더블을 달성했다. 올해는 울산이 근소하게 앞선다. 승점 1차이지만 울산(승점 64)이 전북(2위·승점 63)을 제치고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다. 예년과 달리 전북과 맞대결에서 1승2무로 앞서며 안정적으로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ACL에서도 울산의 분위기가 더 좋

다. 조별리그 6전승으로 디펜딩 챔피언다운 변모를 과시했다. 16강전에선 승부차기 접전을 벌였지만, J리그 챔피언가와사키 프론탈레와 명승부를 연출했다. BG그룹 유니티드(태국)와 16강전에서 고전 끝에 겨우 8강에 오른 전북과 상반된다.

전북으로선 안방에서 경기를 치르는 것이 긍정적이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K리그 팀들의 장거리 이동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ACL 8강~4강 전주 개최를 결정했다. 전북은 사실상의 홈스트 팀으로서 여러 편의를 누리게 됐다. '버블' 형태의 방역 조치에 따라 다른 팀들은 원정숙소 이용 시 어느 정도의 제약이 따른다. 반면 전북은 완주군 봉동읍의 클럽하우스에서 비교적 수월하게 대회를 준비할 수 있다.

유관중 경기 개최도 전북에 희소식이다. 전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돼 전주월드컵경기장에는 정원의 25% 수준인 1만 명의 관중입장이 가능하다. 지난해 2월 12일 요코하마 F마리노스전 이후 오랜만에 전주에서 열리는 ACL 경기인 만큼 많은 전북 홈팬들이 경기장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변수는 A매치 휴유증이다. 시리아(7일·안산), 이란(12일·테헤란)과 맞붙은 2022카타르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A조)을 위해 전북, 울산에선 각각 5명의 선수가 국가대표팀에 호출됐다. 전북이 용은 2경기 모두 풀타임으로 뛰며 체력적 부담이 크다. 울산도 김태환이 대표팀 훈련 도중 부상을 당해 전력누수가 생겼다. 이승우 기자 rau1649@donga.com



### 연속골로 벤투호 구한 손흥민, 이번엔 토트넘을 구하라

18일 EPL 뉴캐슬전 선발출전 유력  
득점력 빈약한 토트넘에 활력 기대

한국축구의 10월 성적표는 나쁘지 않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국가대표팀은 2022카타르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2경기에서 1승1무를 기록했다. 시리아와 홈 3차전에서 2-1로 이겼고, 이라크와 원정 4차전에서 1-1로 비겼다. 두 경기의 히어로 손흥민(29·토트넘)이다. 연속골로 대표팀을 구했다.

손흥민은 10월을 바쁘게 보내고 있다. 3일(한국시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7라운드 에스턴빌라전을 마치고마자 귀국해 최종예선 2경기 모두 풀타임으로 소

화했다. 이라크전 직후 영국으로 건너갔다. 이제는 토트넘을 구할 차례다.

18일 오후 0시30분 EPL 8라운드가 펼쳐진다. 토트넘의 상대는 뉴캐슬이다. 현지에선 손흥민의 선발출전을 예상하고 있다. 풋볼 런던은 14일 "손흥민은 국가대표팀 2경기에서 2골을 넣는 활약을 펼쳤다. 이제는 토트넘에 활력을 불어넣을 차례"라며 "좋은 폼을 유지하고 있는 손흥민 덕분에 토트넘도 향후 행보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시즌 토트넘은 기복이 심하다. 개막 3연승 후 3연패의 늪에 빠졌다. 에스턴빌라전에서 상대 자책골로 연패에서 벗어나 8위(승점 12)에 올라왔다. 빈약한 득점력이 골치거리다. 7경기에서 고작 6골이다. 선

두 첼시(15골), 2위 리버풀(17골)과 차이가 크다. 6골 중 3골이 손흥민의 몫이다. 팀 내 최다득점이다. 9월 A매치 기간에 종아리 근육 부상으로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이내 컨디션을 되찾고 팀 공격을 이끌고 있다. 지난 시즌 득점왕 해리 케인이 아직 골이 없는 가운데 손흥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 이번 시즌 새로 지휘봉을 잡은 누누 산투스 감독으로선 강행군을 거듭하고 있는 손흥민을 중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뉴캐슬은 아직 승리가 없다. 3무4패로 20팀 중 19위다. 특히 최다실점(16)으로 수비가 허술하다는 점에서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다. 손흥민이 A매치의 골 감각을 EPL에서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오심 최소화·판정 질 향상...한국축구판 'PGMOL' 설립 어떨까

(프로축구심판기구)



남장현의 피버피치

스포츠에서 공정성은 아주 중요한 요소다. 정확한 판정과 명확한 규정이 그래서 꼭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축구의 끊이지 않는 이슈는 '오심'이다. K리그가 아주 빠르게 비디오판독(VAR) 시스템을 도입했음에도 말썽은 여전하다.

K리그의 심판 업무는 지난해 한국프로축구연맹에서 대한축구협회로 이관됐다. 당시 협회의 명분은 분명했다. '심판행정의 일원화'다. 심판 육성, 교육, 승급, 배정, 평가 등 심판 관련 행정 전반을 프로·아마추어의 구분 없이 협회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특별한 얘기가 아니다. 실제로 전 세계 대부분의 프로리그 심판 업무는 협회가 책임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축구의 심판 행정은 변함없이 실망스럽다. 투명성과 소통을 중심으로 심판 운영을 하겠다고 선언했으나 현실은 녹록치 않다.

대표적 사례가 있다. 심판배정 공개시점이다. 2019년까지 심판 행정은 맡은 연맹은 특정 경기의 심판들을 전반기 90분 전 공개했다. 심판과 구단이 접촉할 경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였다. 반면 협회는 이를 전 공개했다. "심판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그러나 오히려 역효과가 났다. 팬 커뮤니티에서 응원하는 팀에 배정된 심판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례가 빚어졌다. 결

국 심판들이 이를 내내 욕을 먹고도 부족해 경기 당일 거센 아우까지 받는 상황이 연출됐다. 여론이 좋지 않자 협회는 2020시즌 중반부터 심판 배정 공개시점을 하루 전으로 바꿨고, 시즌 말부터는 비공개로 전환했다.

결론적으로 연맹이 맡은 과거나 협회가 관리하는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오심을 최소화하고 질적으로 우수한 판정을 이끌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데 이견은 없다.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잉글랜드의 PGMOL(Professional Game Match Officials Limited·프로축구심판기구)이다. 2001년 출범한 이 기구는 프리미어리그(EPL), 풋

볼리그(EFL), FA컵의 심판(주심 110명·부심 175명) 운영을 담당한다. 이들의 정기적인(2주 단위) 체력 및 기술훈련과 자기개발, 멘토링을 돕고 영상분석, 실적측정, 평가를 담당한다. 매 경기 데이터를 활용해 심판의 역량이 측정된다.

지원도 대단하다. 일반 클럽처럼 스포츠 학자와 심리전문가, 경기분석·운영요원, 물리치료사, 스프린트 코치, 의사 등이 고용돼 있다. 오심 심판의 실력 향상이 목적이다.

물론 큰 문제가 있다. 돈이다. 조직과 지원 규모로 짐작할 때 PGMOL은 적지 않은 자금이 필요하다. EPL과 EFL 사무국, 잉글랜드축구협회가 재정을 지원하며 별도의 스폰서도 있다. 심판의 능력 개선과 독립성 확보에 공감한다면 우리만의 PGMOL 모델을 고민해보고 만들려는 의지도 필요할 듯하다. yoshike3@donga.com